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아가-

아가 1:5-6, 요한복음 3:16

정윤돈 목사님

* **아1:5-6**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쬘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때 가장 가치 있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전도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본문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계달의 장막’ 같다고 하며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으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후회하는 바보들처럼 술람미 여인도 자기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그런 술람미 여인을 왕비로 삼았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다. 그것도 ‘이처럼’ 사랑하셨다. 무능하고 성격이 안 좋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욕당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밥을 주냐, 응답을 받냐 하지만 정말 응답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던 우리나라를 복음을 가진 소수가 있기 때문에 축복하셨다. 모든 건 그의 나라와 전도 속에 다 있다. 정치인들 속에는 ‘모든 것’이 없다. 지식이 많아지는데 세상은 타락하고 학생들은 경쟁 속에서 더욱 불행해졌다. 지금 과학이 발전하지만 그걸로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다. 과학이 답이 아니다. 생명과 사회와 관계를 죽이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전도 속에 완전함과 충분함과 모든 것이 들어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키가 말씀과 기도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과 내가 있는 현장을 사랑하고 천명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셔도 평생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아는 게 중요하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여러분을 사랑하면 된다. 환경을 탓할 게 없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이해하고 도와줄지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은 술람미 여인처럼 천하고 못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이다. 여기서 ‘계달’이라는 단어는 유목민 조상의 이름이다.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검은 염소 털가죽으로 장막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유목 족속이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완성해 가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의 행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신앙이 예배하고 훈련받고 하는 과정에서 쉽게 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끌어당기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갈등도 주시고 기도제목

도 생기고 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이런 신앙 성장의 과정들을 아가서의 남녀 간의 연애와 갈등으로 만들어가듯 만들어 가신다. 이런 내용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게 아가서다.

오늘은 구약성경 아가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에 기록한 것이다. 잠언은 전성기에 썼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성공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아가서는 첫 사랑을 기록하고 있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해 실수와 우상숭배와 잘못들 이후에 모든 것이 헛되고 전도자로 사는 게 최고의 인생임을 고백한다. 우리도 조금만 성공하면 타락하고 실수한다.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한다. 아가서의 표면적인 주내용은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이다. 그러나 아가서를 주신 하나님의 진정된 목적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다. 당대의 최고의 왕인 솔로몬이 거무스름하고 계달의 장막같은 피부를 가진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추하고 천한 우리를 사랑하신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신부로 맞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지금 문제 하나도 안 끝났냐고 한다. 그러나 그분도 천국 가면 문제가 없어진다. 세상을 살면서는 여당도, 야당도, 잘 되면 잘 되는데도 문제가 계속 된다.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하신 것처럼 기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때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응답받고 누릴 수 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축복과 응답의 발판이 된다.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 주역이 되셔야 한다. 지구를 왜 둥글게 만드셨을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내 자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다 중심이다. 여러분이 다 중심이 될 수 있다. 모두 다 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믿음과 기도와 사랑과 소망이다. 예배에 성공하면 주역이 되신다. 이러한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면 자녀와 후대를 주역을 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걸 이루신다. 진정으로 믿을 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다. 한국이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이민자가 늘어서 오히려 전체 인구는 늘었더라. 걱정할 것이 없다. 다 기회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나라가 세계복음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다.

1. 아가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가서를 기록한 목적은 ①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말씀이 전도서 8장 6절이다.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른 걸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처럼 광야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신다. 하나님의 질투가 이렇게 무섭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기 바란다. ‘나는 하나님 밖에 없어요’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쏟아 주실 것이다. 그 증거가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면 전도할 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복음으로 결론나지 않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믿어지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도 없다. 어떤 주석에서는 전도서 8장 6절을 아가서의 대표요절로 보기도 한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마음과 팔에 도장같이’ 각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도장처럼 새기시라. ② 또한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아가서를 보면 남녀가 갈등하는 내용이 있다.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적인 많은 갈등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성도들은 나의 문제, 갈등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 아가서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 아가서의 일반적인 내용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결혼까지 이루는 과정이다.

(3) 아가서의 특징은 부분적으로는 그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성경책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비유를 풀면 다 풀리는 요한계시록이 더 쉽게 느껴지기도 하다.

(4) 그렇다면 이렇게 아가서가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① 아가서는 시적인 표현기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가’라는 제목이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이다. 저는 요즘 아이돌들이 부르는 노래도

다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10대들은 다 알아듣기도 한다. 이처럼 아가서는 노래가사다. ② 그래서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다. ③ 즉 아가서는 오페라나 뮤지컬의 대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아가서를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다. 저는 뮤지컬은 조금 낯지만 특히 오페라는 이해되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오페라 안에는 많은 예술적인 것과 과정들이 들어있다. 전문가들은 아니까 누릴 수 있지만 우리 같은 문외한들에게는 어렵다. 아가서는 왕궁의 뮤지컬, 오페라와 같다. 많은 걸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아가서에서 찾아내야겠다. 그리고 복음적인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란다.

(4) 또 다른 해석은 아가서가 솔로몬과 솔람미 여인의 사랑과 결혼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 책이 여러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사랑을 다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즉 남자, 여자, 친구들 등이 각자의 시각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아가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

2.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과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본문을 찾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몇 구절이지만 이를 통해 흐름을 파악하시기 바란다.

(1) 1장 3절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깨달은 성도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다. “네 기쁨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기쁨’을 ‘그리스도’로 바꾸면 이해된다. ‘그리스도는 향기롭고 그리스도는 향기름 같으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구나’ 표준새번역에서는 아가 1장 3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입을 쏙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입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임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런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아가서에 담겨있다.

(2) 2장 2절은 고난 중에서도 꽃을 피우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진 가시나무 같은 세상이지만 그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렵고 힘들지만 꽃을 피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편하고 쉬운 곳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죽고 싶고,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지만 믿음의 꽃을 피우기를 상징하고 있다.

(3) 3장 11절은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온의 딸들이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또 3장 7절에서 8절의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육십 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이 장면은 신부의 가마를 지키는 용사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천군천사들이 우리들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은 그래서 기도하셔야 한다. 문제가 있을 때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가정과 가문과 사업과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마라. 갱신과 깨달음의 기회로 만들고 기도해야지 직접 원수를 갚지 마라.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서 항상 기도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제 상대방이 저주받게 하지 않기 위해 미워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4) 4장 7절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흠이 없다고 여겨주신다는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다. 아가서 4장 7절에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얼굴이 시커멓고 촌사람 같고 놀려있는 인물인데 하나님은 어여쁘고 흠이 없다고 하신다. 우리는 스스로 자화하고 비판하고 문제도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무 흠이 없다고 하신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민주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왕권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권으로 사면복권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다. 우리는 다 용서받았으니 더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한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 표현은 간단하지만 복음 중 복음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고 인정해 주셨다.

(5) 5장 2절에서 5절의 내용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특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지방에 떨어지는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는 문을 열어주고 싶지만 문을 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고 싶는데 손에 기름이 묻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준다.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하는 순간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중간사역자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전도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6)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영접한 성도들이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 떼를 먹이는 도다” 그리스도가 양 떼를 치는 모습을 보며 이제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양 떼를 먹이는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6장 4절에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문도 못 열고 도망다녔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양 떼도 치며 이제 주님의 자녀들이 성숙된 모습으로 아름답고 당당하게 성장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란다.

(7) 7장 1절에서 7절에서는 주님이 보시기에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8) 8장 6절에서 7절에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물로도, 향수로도 삼키지 못할 것이고 어떤 물질로도 주님의 사랑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卼지 못하겠고 향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무의식에 녹아지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도 할 수 없다. 싸우고 싶어도 안 된다. 그 정도까지 말씀이 각인되시기 바란다. 중독도 어느 순간 끊어진다.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믿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7.7.7기도문 중 7여정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다. 7여정 7가지는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교회이다.

“① 하나님,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②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해 주옵소서. ③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더해서 말합니다.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④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⑤ 나와 현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을 우리에게 해 주옵소서. ⑥ 62가지 평생에 누릴 답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⑦ 오늘 어디어디를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죄 많고 미천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전하기 위해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날마다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가서를 통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외롭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주역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